

계획작품 blueprint

송파동 D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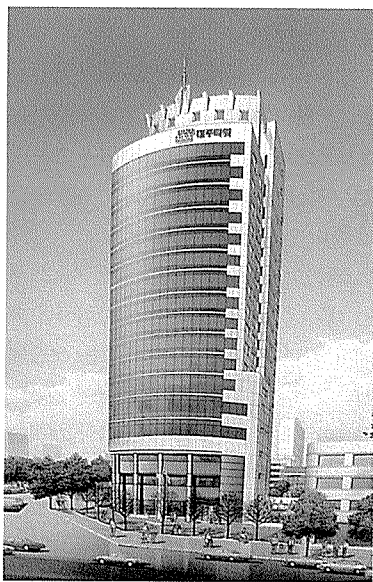
진양호등대

서해수산업연구소

송파동 D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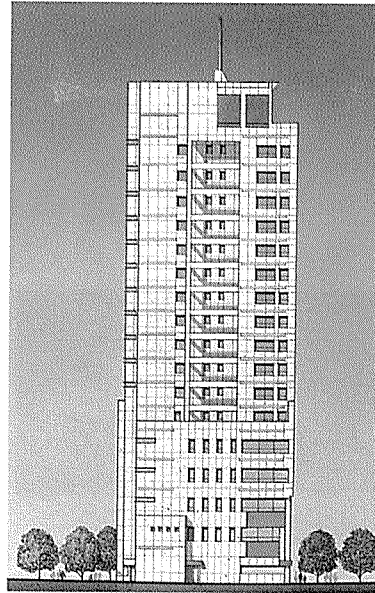
D Tower Bldg, Songpa-dong, Seoul

이병윤 / (주)도기종합건축사사무소



투시도

대지위치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7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2종 미관지구,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886.30㎡(268.1평)
건축면적	457.94㎡(138.53평)
연면적	9,127.29㎡(2,760.99평)



동측입면도

건폐율	51.67%
용적률	639.76%
조경면적	212.01㎡
공개공지	50.87㎡
용도	주거겸용 업무시설(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규모	지하7층, 지상17층, 옥탑2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료	24 컬러복층유리+30 화강석 +3 알루미늄 쉬트
주차대수	60대(장애인주차2대)
오피스텔	19평형~43평형, 49실

호수와 건축

호수는 조용하고, 넓찍하며 편안하다. 더구나 도심의 호수는 주변 건물의 굴곡에 비추어 안락감의 강도가 훨씬 더하다. 계획부지는 석촌호수를 마주하고 송파대로(50m도로)와 석촌호수길(25m도로)이 교차되는 모서리로서, 호수 주변의 배타적 건축물과 달리 그 내·외부공간이 어떻게 호수와 교감을 갖을 수 있는가에 프로그램을 맞추었다.

주요도인 오피스텔 부분은 6층 이상 중·고층부에 배치하여 호수 경관을 끌어들이고, 저층부는 호수를 대면할 수 있도록 플랫폼 스타일의 매스를 계획, 기반부를 형성하는 기둥을 디자인 하였다. 수평띠의 외관계획에 비례적 안정감을 주는 수직 기둥의 요소는 디자인

인 모티브의 상층이라는 면도 없지 않으나, 상반된 요소를 비례적 조화로 유도하였다.

건축의 기쁨

건축은 행위나 활동을 제어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유도할 수도 있다. 건축공간이 혼돈이 아닌 질서로 정립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 완벽한 짜맞춤 공간에서 오는 질서정연함은 현실적인 건축법규의 테두리로 또 한번 아찔함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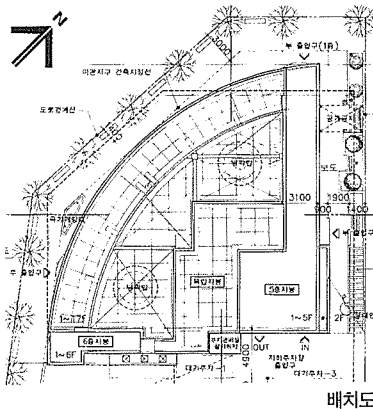
도시설계지구에 적용되는 몇가지 제한요소들은 아무개 건축가의 창의적인 틀을 벌써부터 짜놓고, 거기에 고개만 내밀어 넣으라는 식이다. 계획부지에 법규와 지침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배치계획이 끝나버리는, 어찌보면 참으로 싱거운 대안에 매달려 황당한 꿈을 접근시키곤 하지만 그래도 건축의 Context에 따른 질서를 유도하고 나면 기쁨은 나름대로 있는 것 아닌가.

4분원형 평면을 어찌어찌하여 완성하고 보니 이제 이 단순한 매스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건축가로 하여금 이제는 조각가로의 변신을 유도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건축은 기쁨인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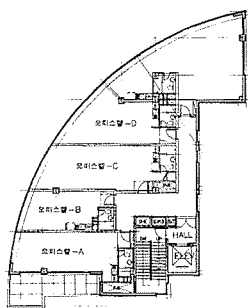
낮의 건축 밤의 건축

도로에서 보는 건축은 어떨까. 키 높은 건물은 주변환경을 딛고 일어서 멀리서도 인식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면이 파사드 효과를 갖기 쉽상이다. 교차로 모서리에 위치한 잇점을 살려 조금은 다른 형태의 파사드를 연출해 보았다. 호수를 대면하는 교차로쪽에 곡면의 가늘픈 부드러움에 비추어, 남·동측 입면은 고층 건물이 갖는 세장효과를 완충시켜주는 장방형 사각 모듈을 반복시킴으로서 묵직한 안정감을 주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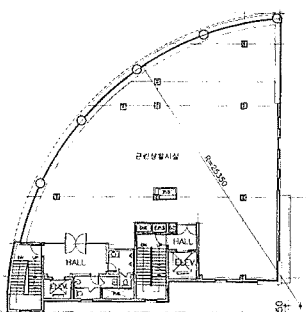
호수의 낮과 밤은 어떨까. 청색 칼라 우리는 호수를 더욱 맑게 반사시킬 것이고, 호수는 밝은 화강석 틀에 갇힌 건물을 거울처럼 안아줄 것이다. 밤이 되면 오피스텔의 야경은 수평띠의 빛으로 호수를 출렁이게 할 것이며, 밤의 건축은 빛으로 그 애깃거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 밤이 다 지새우도록... (글/이병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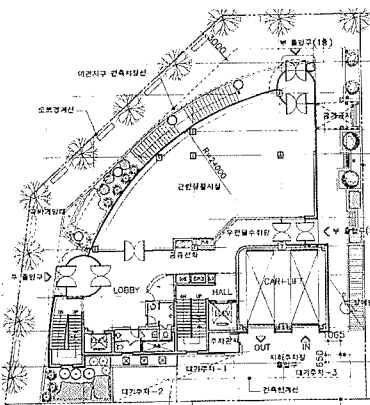
배치도



7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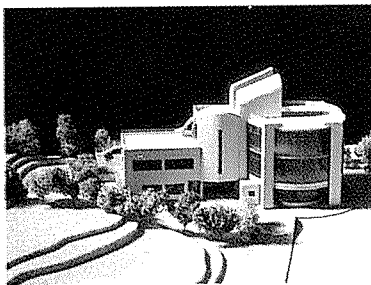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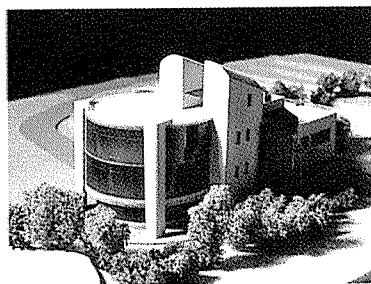
진양호 등대

Jinya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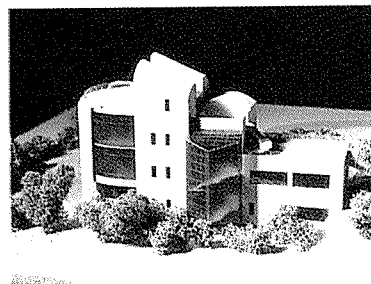
김근성 / 토담건축



모형1



모형2



모형3

대지위치	경남 진주시 판문동 산213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2,523.0㎡
건축면적	415.57㎡
연면적	1,130.42㎡(지상층연면적 : 1,058.42㎡)
건폐율	16.47%
용적률	41.95%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13.05m
조경면적	법정(1,009.2㎡, 40%), 설계(1,200.36㎡, 47.58%)
주차대수	법정7대, 설계7대

설계참여 김춘구, 강태호
모형제작 이종록, 전봉수

진주의 명소 진양호에 가보면 항상 느끼는 허전함이 있다. 천혜의 자연은 만날 수 있으나, 조화된 건축물을 찾기는 쉽지 않아 건축인으로 항상 아쉬움을 담고 있었다.

인연이 있었다! 박사장과의 만남. 진양호 입구에 방문객과 전원의 향취를 원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차와 먹거리를 줄 수 있는 건축물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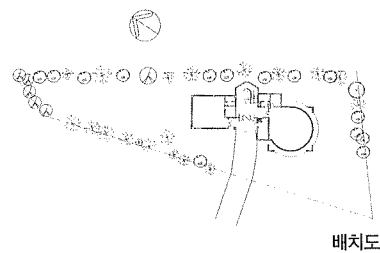
건축주의 요구는 '좋은 건축물'로 설계자를 많은 고민 속으로 몰아 넣기에 충분했다.

입지적으로는 Landmark 기능을 수행하고, 건축적으로는 모임의 장을 제공하는 건물로 서쪽으로 12m 도로에서 6m 접근로를 통해 공원지역을 통과하면서 얻은 야외의 경쾌함은 1층 전시실로 관입되고, 전시실은 외부경관을 차경(借景) 삼아 자신의 모습을 살며시 보여주고 있다. 개방된 계단은 여인의 어깨를 맞대고 주변을 관람하여 목적지까지 무리없이 도착하기에 충분하다. 2, 3층의 원형부분을 시각적 경관 확보와 공간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12m Span과 7형기둥을 사용하여 해결했으며, 외형을 기둥으로 수직선을 강조하고, 창호로 수평의 감을 주어 안정감을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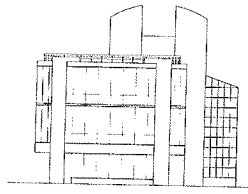
요즈음 박사장은 "좋은 건축물"을 요구한 책임(?)을 지고 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설계자를 믿어주는 모습에서...

올 가을에는 진양호를 나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 한 잔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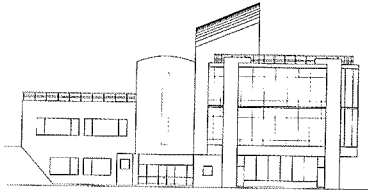
(글 / 김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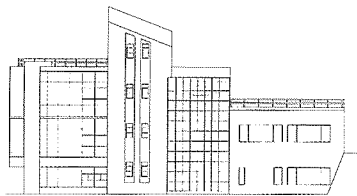
배치도



우측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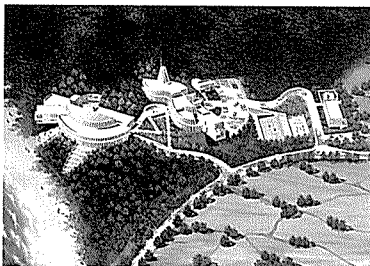


배면도

서해수산연구소

The West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김경택 / 다인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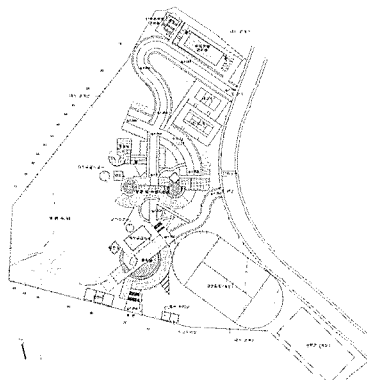


조감도

대지면적	38,330㎡
건축면적	2,832.9㎡
연면적	5,166.7㎡
건폐율	7.39%
용적률	13.6%
규모	본관 및 어업자원동, 증식동/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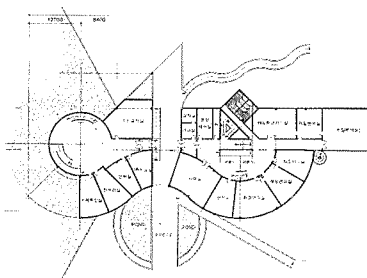
설계소묘

대지는 섬이다. 섬에서도 바다가 보이는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바다를 연구하는 곳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리해야 할까. 녹지는 최대한 보존되어야 한다. 경관은 더할나위 없이 좋다. 두 건물은 쌍을 이루고 있다. 입방체와 곡면체가 부딪히면서 매스가 생성되지만, 동일한 원리로 다른 형태의 두 건물이 빚어지고 있다. 한 동은 대지의 경사가 직각으로 놓이며 축을 만들고 또다른 하나는 대지와 평행하게 놓이며 축을 형성한다. 그러나 두 건물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대지의 경사를 따라 휘어진 진입로를 따라 본관 필로티에 서면 서해바다가 펼쳐지며 연못 위에 놓여진 다리를 지나 엇비슷하게 자리한 증식동이 눈에 들어온다. 각 건물들은 지붕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을 머금고 있다. 연구원들은 계단으로 또는 경사로로 움직이며 다양한 공감 체험을 할 수 있다. (글/김경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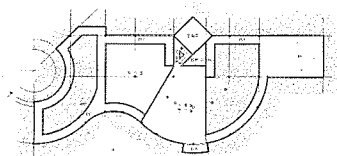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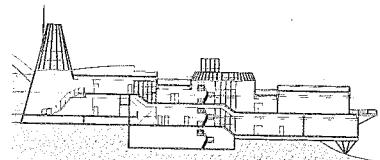
본관 및 어업자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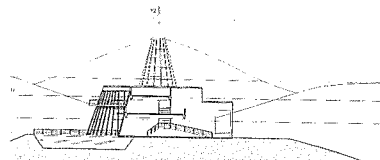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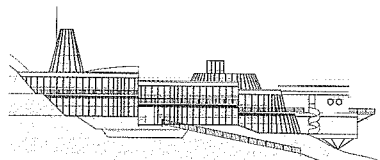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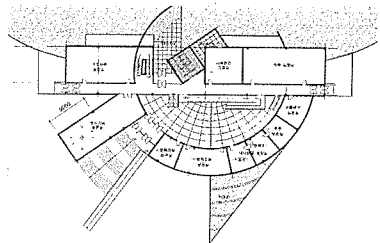


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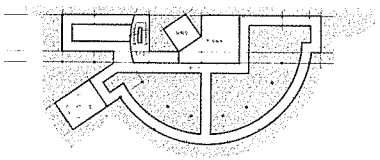


A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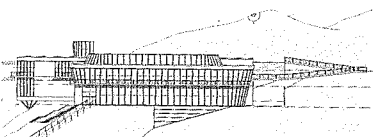
증식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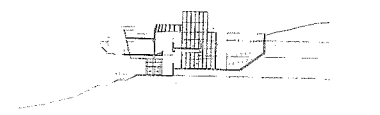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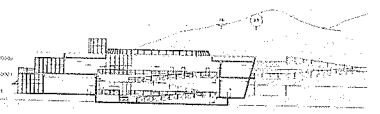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입면도



단면도1



단면도2